16강 결정의 날…광주 자영업자·시민 '활짝'

밀려오는 주문 배달 업체 분주…월드컵 특수 '톡톡'

포르투갈 격침·16강 진출 환호성…브라질 전 기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3차전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열린 지난 3일 새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주점에서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매출 상승도 기쁘지만, 열심히 잘 싸워준 선수들 덕에 잠깐이나마 시름을 잊었네요. 16강 전에서도 태극 전사들이 멋진 기량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줬으면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H조 마지막 예선전이 치러진 지난 2일 광주시내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특수를 맞아 즐거운 비명을, 시민들은 16강 진출을 염원하며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다.

이날 오후 10시께 찾은 광주 북구의 한 치킨집. 경기 시작까진 2시간 정도 남은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여느 때보다 분주했다.

음료와 젓가락 등을 박스 안에 넣고 있던 홀 직원은 주문 전화도 받고 주방에 내용도 전달해야 해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지경이었다.

주방 직원들도 튀김기에 닭을 넣고 튀겨지길 기다리는 순간에도 재료 손질과 양념 준비 등을 하며 밀려오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치킨집 점주 A씨는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가 있던 날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을 받다 보니 혼선이 잦아 오늘은 전화로만 주문을 받고 있다"며 "손님들이 경기 시작 전에 치킨을 받기 원해 평소보다 문을 일찍 열고 준비했는데도 일이 끊이질 않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배달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직원의 안내에 일부 매장은 찬바람을 뚫고 직접 음식을 가지러 온 손님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이곳 사장 B씨도 "배달과 포장이 모두 밀려 기본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는다고 안내하는데도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며 "지난 한국 경기 때는 매출이 2배 가까이 나와 간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쁜 건 배달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였다.

배달을 마친 기사들은 강추위에 언 몸을 녹이러 휴게실에 들어와 커피 한잔을 마시는 잠깐의 휴식 뒤에 곧바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배달 기사 C씨는 "축구 시작 시간 전부터 배달이 엄청 들어와 평소 배달하는 건수를 이미 돌파했지만, 계속 콜이 들어와 오늘은 바짝 벌어두려고 한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동네 식당과 술집 등엔 손님들이 물밀 듯 밀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앞선 가나전에서 패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올라갈 수 있어 가게에선 업주·손님 가릴 것 없이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경기 시작 전 선발선수 명단에 이강인 선수가 포함된 것을 본 한 시민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러다 전반 시작 5분여 만에 포르투갈이 득점하자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이내 힘찬 응원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차 달아올랐다.

전반전 26분, 대한민국의 코너킥 찬스에서 손흥민이 올린 볼이 포르투갈의 호날두를 맞고 떨어져 나오자 이를 놓치지 않은 김영권의 날카로운 슛이 골로 연결되자 가게가 떠나갈 정도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후반전 때도 경기 종료를 앞두고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역전골을 터뜨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뛴 손님들로 가게 안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함락시켰지만, 16강 진출 결정은 아직이라 시민들은 가나-우루과이 경기가 0대 2상태로 종료되길 염원했다.

이윽고 심판의 휘슬과 함께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이날 하루 중 가장 큰 함성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손님 D씨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때 중학생이 였는데 그때는 어리고 축구가 이렇게 큰 감동을 줄지 몰랐다"며 "다시 한번 원정16강을 진출해서 기쁘고 남은 경기도 선수들이 후회없는 경기를 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게 사장 E씨도 "월드컵 경기 기간이면 항상 단체 손님이 와 매출에 상당 부분을 기여한다"며 "자영업자로써 이런 축제 기간이 늘 반갑다"고 밝혔다.

이어 E씨는 "매출 상승도 기쁘지만 오늘 너무 잘 싸워준 태극전사들 덕에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걱정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멋진 기량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줬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16강전은 오는 6일 오전 4시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사회부

초등생 등 10대 3명, 15초만에 금은방 '털었다'

주범격 1명 구속…촉법소년 불구속 수사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초등학생 등 10대 청소년 3명이 범행 8시간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군이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했던 초등학생인 B(12)군과 중학생 C(15)군은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B·C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촉법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팔찌 등 4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망치로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쳤다.

주범격인 A군과 B군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C군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초 만에 범행을 마친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모처로 도주했다.

주범인 A군은 범행 전 아는 동네 형 D씨에게 '내가 금은방을 털테니 금좀 팔아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군 등은 D씨를 만나 귀금속을 팔아달라며 일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과 연락처 등을 모두 지우는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광주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범행 8시간30분여만에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3천만원 상당의 도난 귀금속을 회수했다.

장물 처리를 부탁받고 귀금속을 가져간 D씨를 추적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출을 빈번하게 하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물 처리를 부탁받고 귀금속을 가져간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나 범행 교사자가 있는지 조사중이다. /오복기자

노래방 감금·폭행 30대 벌금 1천만원

노래방에 여성들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에 따르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1·여)씨와 종업원 C(30·여)씨, D(24·여)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업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복기자

광주·전남 주말사이 화재 잇따라

주말 사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각종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4일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7분께 화순군 한천면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6㎡ 규모 펜션 1동이 전소했고, 냉장고와 가재도구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날 오후 8시46분께에는 순천시 교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불로 이 주택에 거주하는 모자 지간인 A(79·여)씨와 B(58)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선 오전 10시10분께에는 강진군 도암면의 한 주택 마당에 있는 저온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창고 옆에 있던 아궁이 불씨가 땔감으로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2시3분께는 광주 동구 계림동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완진됐다. /오복기자

'수사 불만' 경찰서에 휘발유 뿌리고 위협 40대 징역 3년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가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에 따르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11시2분께 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4월2일 세금계산서 문제로 다툰 업주의 가게 출입구에 화물차를 세워 물품 반·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오복기자

수뢰 완도군 공무원 징역 6년·벌금 1억

완도군의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 벌금 1억원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완도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김 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B업체로부터 2020년 4-8월께 2천만원씩 5차례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B업체 측은 A씨에게 "또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테니,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통해 그 업체와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뇌물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복기자